

트렌드

원앤파트너스, 우리사주총연합회와 맞손...“우리사주 활성화”

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

등록 2024-01-17 오후 4:46:06
수정 2024-01-17 오후 4:46:06

[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]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와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.



17일 차진수 우리사주총연합회 회장(왼쪽),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제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(사진=원앤파트너스)

서울 서초구 원앤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차진수 총연합회 회장,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 두 단체는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근로자의 권리 향상,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공동의 목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.

지난 2013년 결성된 총연합회는 현대자동차, 기아 등 각 기업체의 우리사주조합 연합단체다. 근로복지기본법 상 명시돼 있는 우리사주조합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고,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.

지난해 신임 차진수 회장이 선임되며 조합원 출연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공제 증액, 회사 무상출연 우리사주 의 무예탁기간 단축, 우리사주조합 상근자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.

차진수 총연합회 회장은 "지난 2021년 원앤파트너스와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의 권리 찾기 및 법률 지원과 자문 등의 여러 활동에 나섰다"며 "보다 발전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와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"향상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넘어 업무 전반에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"이라고 말했다.